

22~24일 제주도 매우 많은 눈

빙판길, 강추위, 강풍 · 풍랑 유의

주요 내용

- (대설) 해안 3~10cm, 중산간·동부 30cm 이상, 산지 60cm 이상 매우 많은 눈
- (강추위) 평년보다 1~6도 낮은 기온,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 더욱 낮아져
- (유의사항) 건강관리, 도로 빙판길, 강풍·풍랑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



[1월 22~24일 예상기압계 모식도]

-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이용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24일(수) 밤까지 제주도에 매우 많은 눈이 내리고, 찬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고 하며, 대설과 강추위, 강한 바람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기를 당부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기상 전망을 발표하였다.

[대설과 추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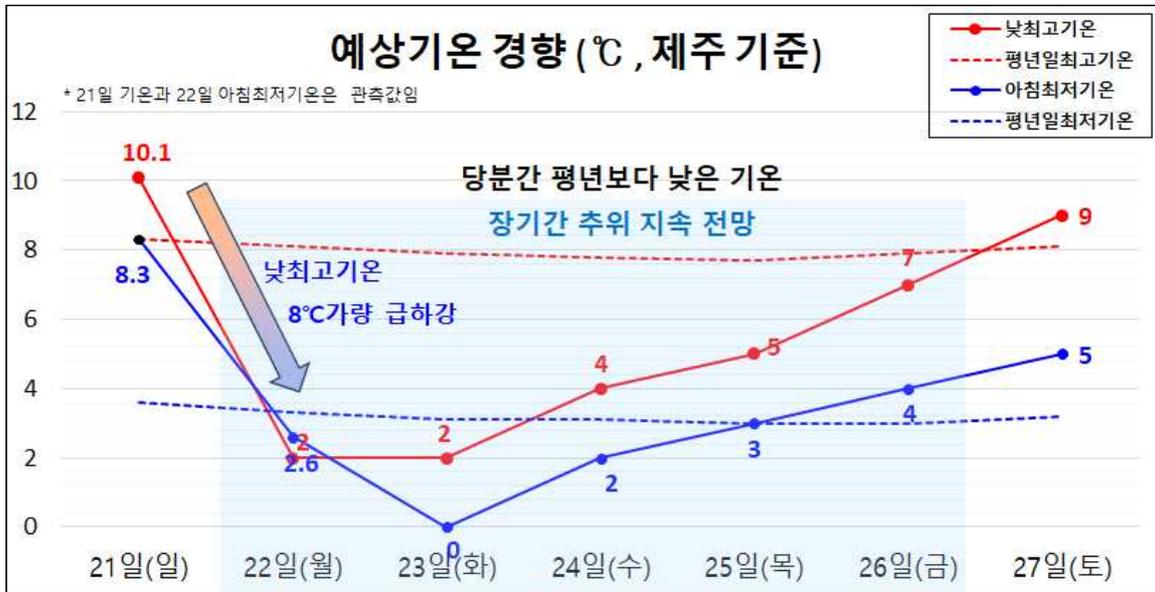
- (대설)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도 5km에 위치한 차가운 공기(영하 30℃)가 한반도 부근으로 유입되면서,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와 기온의 차이(해기차)에 의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 현재(22일 11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산지에는 10cm 이상의 눈이 쌓인 곳이 있으며, 오후에는 중산간지역으로, 밤에는 해안지역으로도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지역 확대, 산지에는 대설특보 강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 특히, 23일(화) 오후부터 24일(수) 오전 사이 매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주도중산간과 동부지역으로 대설특보 강화 가능성이 있겠으니, 최신의 기상정보를 확인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또한, 산지에는 25일(목) 오전까지 장기간 적설이 이어짐에 따라 지역별·고도별 적설량의 차이가 크겠으니, 많은 눈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를 강조하였다.

< 예상 적설 및 강수량(22일~24일) >

- 예상 적설 : 제주도산지 20~40cm(많은 곳 60cm 이상),
제주도중산간, 동부 10~20cm(많은 곳 30cm 이상),
제주도해안(동부 제외) 3~10cm
- 예상 강수량 : 제주도 10~50mm

※ 예상 적설 및 강수량 변동 가능성 있으니 최신의 기상정보 참고 바람

- (기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평년(일최저기온 3℃ 내외, 일최고기온 8℃ 내외)보다 1~6도가량 낮아져, 23일(화)과 24일(수)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기온이 0℃내외의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특히 매우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은 가운데, 25일(목) 이후에도 평년보다 1~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강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
-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되는 만큼, 급격한 기온변화에 대한 노약자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고,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눈길·빙판길 주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대부분의 도로에는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겠으니, 보행자 안전 및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 월동장비를 갖추는 등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한라산 등반로에도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등산객 및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 (주의사항) 24일(수)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장기간 이어지는 많은 눈과 강한 바람으로 항공편, 여객선 운항에 차질 가능성이 있겠으니,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출발 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또한 22일(월)부터 24일(수)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고, 산지에는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차간 간격을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변동성) 찬 공기가 유입되는 시점과 강도, 지속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적설과 강수량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예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강풍 및 풍랑 전망]

- (강풍) 현재 강풍특보가 발효중인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 90km/h(25m/s)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25일(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 특히, 23일(화)부터 24일(수) 오전 사이에 산지에는 북서풍이 110km/h(30m/s)이상으로 더욱 강하게 불면서 강풍경보 강화 가능성이 있겠으니, 최신의 기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풍랑) 또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는 바람이 35~65km/h(9~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이는 가운데,
 - 특히, 제주도남쪽먼바다와 서부앞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3~5m로 높게 일면서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며, 22일(월) 오후부터 24일(수) 오전 사이에 남해서부서쪽먼바다와 제주도앞바다(북부·동부앞바다)에서도 풍랑경보 강화 가능성이 있겠으며, 풍랑특보는 25일(목) 밤까지 장기간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당분간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며, 특히, 물결도 높게 일면서 강한 너울이 유입되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주의사항) 강한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 및 야외 시설물 점검 관리와 높은 파고에 의한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장기간 이어지는 풍랑의 강도와 시기에 변동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충기 (064-909-3920)
		담당자	전문관 한경훈 (064-909-3920)